

# 5만수 이상 계약사육, 시설자동화로 충분한 수입 올린다

□ 취재/권동원 기자

**육** 계사육자의 계열주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던 일이 불과 1년여 전이다. 물론 계열화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진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

불공평한 계약, 계열주체의 신뢰도, 반종속적으로 비취지는 관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본적으로 계약사육은 소득이 너무 적다는 불평이었다. 또한 중·대규모 사육자들이 계열주체의 계약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며, 중·대규모 사육자들 역시 계약사육을 기피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사육자 단위로 계열주체와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분석되어 자칫 육계산업에서 도태될 것 같은 우려가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즈음 모 계열주체가 밝힌 1만수 내외의 소규모 계약사육농가가 2만수 이상 농가 보다 사육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는 분석이었다. 이 때문에 계열주체는 소규모 사육농가를 선호하고 특히 육계산업에서 좋

지 않은 습성에 물들지 않은 신규업자를 더 선호함에 따라 기득권을 가진 중·대규모 사육자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열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신규업자와의 계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계열화 따른 양적 성장

계열화가 사육자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주지만 정보와 자금력에서 앞선 사육자에게는 투기성에 가까운 풍토가 더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가 임박해옴에 따라 개별사육하던 기존사육방식으로 는 외국 닭고기에 시장을 잠식당하리라는 것이 자명한 일이어서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계열화 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돌아섰다.

기업이 주도하는 계열주체에 일방적으로 당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육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계열주체를 설립하고 있다. 사육자가 주도하는 계열주체는 육계산업 발전 뿐 아니라 계열주체와 경쟁을 통해서 사육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표출되었던 사육자들의 불만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사육자들의 능동적 자세 전환으로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계열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뒷받침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현재 전체 물량의 30% 정도가 계약의 개념 아래 생산되고 있는데, 체계를 갖춘 계열주체에서는 15%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계열주체의 수도 1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유사계열주체, 계열화사업을 준비중에 있는 업체까지 감안하면 계열주체의 난립도 우려된다.

계약사육농가들은 안정적 소득이 보장된다. 또 많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전업 소규모사육은 인건비에 불과

1만수 규모 양계장이 사육수수료 kg당 120원에 1.5kg 출하, 연 5회전의 경우 연소득 9백만원, 월소득 75만원이라는 계산이다. 이 소득도 병아리, 사료,약품, 연료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이 포함된 사육수수료이기 때문에 순수익은 이보다 더 낮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사육으로는 자기경영이면서 인건비에 불과한 소득이다.

선진국의 경우 kg당 사육수수료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 그러나 더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계열화 생산으로 낮출 수 있는 생산비와 사육규모간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한일식품 계열화사업부 생산비 현황을 알아본다.

한일식품은 양계산업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발전의 안정적 기반조성과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열화사

업을 시작했다. 사육부분은 계약사육자에게 계열사인 한일농원 병아리를 수당 250원에 공급해주고, 한일사료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여 준다. 사육된 성계는 전량 kg당 870원에 수매하는 방법이다.

즉 품질좋은 병아리,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사육된 성계는 시중시세와 무관하게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임으로써 사육자에게는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준다.

### A농장 시양실적

입추일자	90.8.13	육성율	97%
출하일자	90.9.19	출하총중량	9,020kg
사육일수	38	평균체중	1.55kg
입추수수	6,000수	사료요구율	1.86 : 1
출하수수	5,818수	수당사료량	2.88kg

### 비 용

	금 액	수 당 비 용	kg 당 비 용
병아리대	1,500,000	250	166
사료비	3,953,312	659	438
인건비			
약품방역비	63,000	11	7
건물상각비	36,000	6	4
기구상각비	7,000	1	0. <sup>8</sup>
수리비	45,000	7. <sup>5</sup>	5
소모품비	25,000	4	2. <sup>8</sup>
수도광열비	192,000	32	21. <sup>3</sup>
세제공과금			
(자본이자)			
기타	50,000	8. <sup>3</sup>	5. <sup>5</sup>
총비용	5,871,312	978. <sup>9</sup>	650. <sup>4</sup>

### 수 입

총수입	7,854,600	총비용	5,871,312	생산비	651원/kg
순수익	1,983,288	수당순수익	330	kg당수익	220

### B농장

#### 사양실적

입추일자	90.8.13	육성율	98.4%
출하일자	90.9.19	출하총중량	8570kg
사육일수	38	평균체중	1.45kg
입추수수	6,000수	사료요구율	1.91 : 1
출하수수	5,905수	수당사료량	2.78kg

#### 비용

	금액	수당비용	kg당비용
병아리대	1,500,000	250	175
사료비	3,882,647	647	453
인건비	800,000	133. <sup>3</sup>	453. <sup>1</sup>
약품방역비	60,000	10	7
건물상각비	60,000	10	7
기구상각비	60,000	10	7
수리비	60,000	10	7
소모품비	60,000	10	7
수도광열비	120,000	20	14
제세공과금			
(자본이자)			
기타	40,000	6. <sup>7</sup>	4. <sup>7</sup>
총비용	6,582,647	1107.	775. <sup>1</sup>

#### 수입

총수입	7,465,740	총비용	6,582,647	생산비	768원/kg
순수익	883,093	수당순수익	147	kg당수익	103

현재 70농가와 계약으로 월40만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1일 2만수 처리능력을 가진 도계장을 갖추고 있다.

#### 인건비 비중 낮추어야

한일식품과 계약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1만수 내외의 소규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5만수 이상 전업규모의 사육농가도 있어 규모에 따른 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천수를 사육한 A와 B 농장은 1회 사육수입이

### C농장

#### 사양실적

입추일자	90.8.6	육성율	97.2%
출하일자	90.9.15	출하총중량	74,410kg
사육일수	40	평균체중	1.53kg
입추수수	50,000수	사료요구율	1.86 : 1
출하수수	48,602수	수당사료량	2.85kg

#### 비용

	금액	수당비용	kg당비용
병아리대	12,500,000	250	163
사료비	32,069,066	660	431
인건비	1,500,000	31	20
약품방역비	2,400,000	41	32
건물상각비	2,000,000	41	27
기구상각비			
수리비			
소모품비	840,000	17	11
수도광열비	200,000	4	3
제세공과금	50,000	1	1
(자본이자)			
기타			
총비용	51,559,066	1053	688

#### 수입

총수입	64,736,700	총비용	51,559,066	생산비	688
순수익	13,177,634	수당순수익	278	kg당수익	182

198만원과 88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A 농장은 1.55kg에 출하하여 사료요구율이 1.86 : 1로 kg당 생산비는 651원, 수익이 220원이다. 반면 B 농장은 출하체중 1.45kg, 사료요구율 1.91 : 1로 비슷한 성적이나 kg당 생산비가 768원으로 A 농장 보다 117원이 높았다.

A 농장은 자가노동을 이용하여 사육하여 부업이나 소규모 양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B 농장은 소규모이면서 종업원이 고용되어 인건비 부담이 kg당 93원으로 의미없는 수입에 그치고 있다.

## 5만수 1회사육 1천3백만원 수입

C 농장은 5만수를 입추하여 출하체중 1.53kg, 사료 요구율 1.86 : 1로 kg당 생산비가 688원이 나왔다. 자동화된 시설과 사육수수 확대로 kg당 인건비가 20원에 불과해 A 농장 보다 생산비가 높았으나 전체 수익이 1,317만원으로 전업양계로서의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일식품은 6천~1만수의 소규모와 5만수 이상 대규모 계약농가의 성적이 양호하며, 재래식 계사를 가진 3만수 정도의 농가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육 성적도 우수하지 못해 계약사육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사육은 1만수 내외의 소규모 전업이나 부업양계와 5만수이상 대규모 양계농가를 선호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계약농가의 kg당 생산비는 7백원 이하로 계산되고 있으나 계열주체에서 870원에 수거하고 있어 생체 kg당 생산비는 870원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열주체 수거가격이 600원대로 떨어져야 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 내년 병아리, 사료가격 낮추어 kg당 750원 수매

한일식품은 870원에 수매하고 있는 가격을 91년도까지 750원으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계열주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병아리가격을 250원에서 180~200원 수준으로 낮추어 공급하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사료가격을 대폭 낮추어 공급하는 등 원자재 가격을 낮추어 생산비를 인하한다는 목표이다.

91년도 목표 750원도 국제경쟁력과 아직 거리가 있으나 정부와 계열주체, 계약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하면 국제경쟁력 확보는 무난하리라 전망이다. 박기철 차장은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 생산비를 압박하는 요인을 제거해 주며 계열주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계열주체는 병아리에서 이윤이 없이 원가에 공급하고 사료도 주문사료나 자가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원자재비를 낮추고, 계약농



**계약사육에 적당한 농가는  
자기노동에 의존하는 소규모와  
자동화로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농가로 구별된다.**

**2~3만수로 재래식 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는  
하루빨리 시설 개선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야 하리라 본다.**



가는 사육수수를 확대하여 kg당 이윤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5만수를 여자가 부업으로 사육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시설의 자동화, 대형화로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계열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관리의 성력화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10만수를 부업규모로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계약사육에 적당한 농가는 자기노동에 의존하는 소규모와 자동화로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농가로 구별된다. 2~3만수로 재래식 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는 하루빨리 시설 개선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야 하리라 본다.

수입개방의 위협속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계열주체, 사육자간 각자 원가절감에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계열화 체계가 구축된다고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닭고기가 NTC 품목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자생력을 갖추어 떳떳하게 양계산업이 존립하도록 정부, 양축가, 계열주체, 유관업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양계**